

HIF월간 산업 이슈 (4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철강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기업의 원가 부담 가중

- 연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글로벌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금속곡물 등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
- 특히 러시아산 석탄 및 철스크랩 수입 제한으로 철강 원료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내 주요 철강 제품(열연, 후판, 자동차 강판, 철근 등)의 가격 인상폭이 확대되는 분위기
- 이에 따라, 건설·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의 원가부담이 예상되며, 특히 전후방 업체 대비 가격 전가력이 낮은 중소형 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조선 '러·우 전쟁'으로 LNG선 수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팬데믹 기간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였고, 유럽은 기존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각화하여 LNG선 용선료가 급등
- 미국은 최근 LNG 생산시설을 증설하였고 EU에 미국산 LNG 공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에너지 시장 변동에 따른 LNG선 수요 모니터링이 필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건설업 및 시멘트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건축자재 가격상승이 건설원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5% 내외에 불과하며, 주택시장 활황에 힘입어 건설사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어 원가 상승에 따른 충격은 충분히 감내할 수준
- 시멘트 소성연료가 다변화되면서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멘트 가격 상승 압력도 우려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레미콘 가격 역시 소폭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숙박업 거리두기 완화, 숙박 이용 경험 고급화, 해외 방문객 증가 기대로 숙박업은 회복 예상

-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텔 숙박 선호도가 높아져 내수 시장의 고급화가 진행 중으로 여행 관련 지출액 및 숙박비 지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
-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 및 항공기 증편에 따른 해외 입국자의 증가 기대되어 '22년 관광시장 회복과 함께 숙박업 매출 개선 및 숙박업 산업지수 회복 예상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기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산업 이슈

- 철강 : 러시아·우크라이나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기업의 원가부담 가증
- 조선 : '러-우 전쟁'으로 LNG선 수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 : 원자재 가격 상승이 건설업 및 시멘트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 숙박업 : 거리두기 완화 및 숙박 이용 경험 고급화로 숙박업은 지속 회복 기대

C24. 철강 : 러시아·우크라이나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기업의 원가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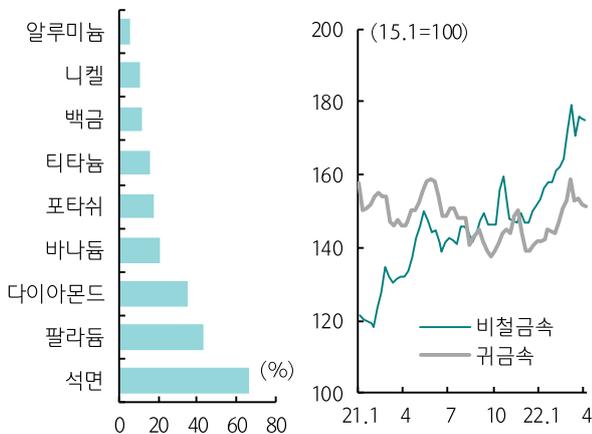
연구위원 김유진 jazzgene@hanafn.com

※ **Summary** : 연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의 對러시아 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글로벌 원자재 공급 리스크(물류 및 결제 등)가 현실화되자, 금속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불안이 발생.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서방의 對러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러시아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 특히 러시아산 석탄 및 철스크랩 수입 제한, 호주산 대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철강 원료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내 철강가격이 대폭 인상될 전망. 따라서 건설·자동차·조선 등의 원가부담이 예상되며, 특히 전후방 업체 대비 가격 전가력이 낮은 중소형 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對러 제재가 현실화되자, 글로벌 원자재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산업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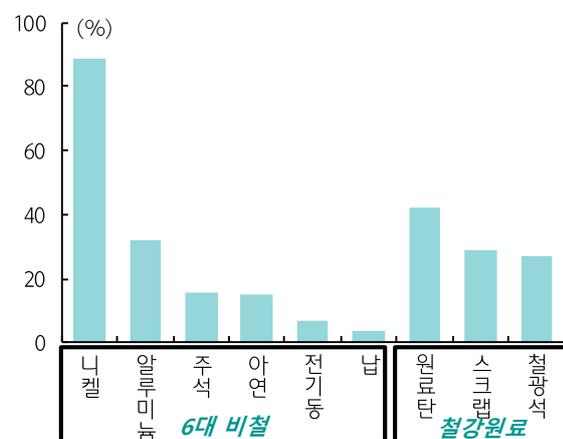
- 연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의 對러시아 제재 조치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 리스크(물류 및 결제 등)가 현실화되자, 주요 원자재의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급등
 - '22년 1분기 중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지수인 S&P GSCI가 30% 정도 상승
- 글로벌 Top3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 Maersk, CMA CGM가 러시아 운송을 중단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러시아 항공기의 유럽·미국 지역 운항을 금지하면서 항공, 선박, 철도를 이용한 러시아의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
- 미국과 EU가 러시아 7개 은행(1위 Sberbank 제외)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 이용을 3월 12일부터 금지함에 따라 러시아산 원자재 무역 또한 제한

그림1 | 주요 원자재 총생산량 중 러시아 비중 및 가격 추이



자료 : USGS, Korea 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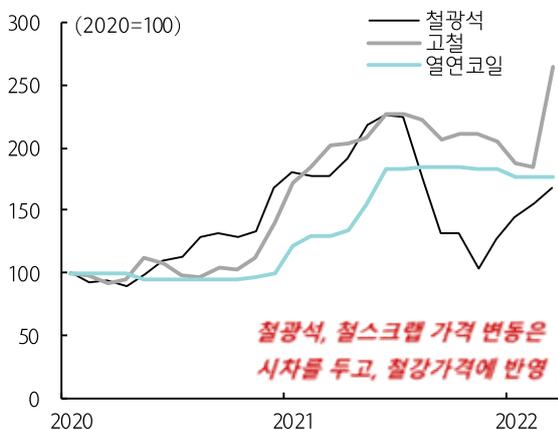
그림2 | 對러 제재 이후 주요 금속의 가격 변동



주 : 2021년 말 대비 2022년 3월 중순 가격의 상승률
자료 : Korea 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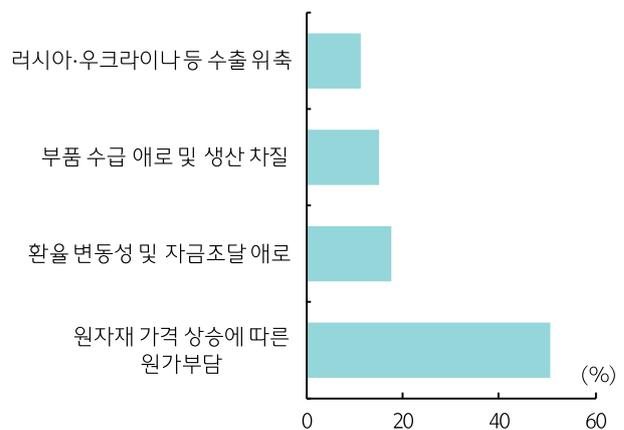
- 특히 러시아 생산 비중이 높은 금속(니켈,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고, 철광석, 석탄 등의 철강 소재 또한 수급 불안이 지속
 - 산업금속 중 러시아 생산 비중이 적지 않고, 2차전지의 핵심소재로 미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니켈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작년말 대비 각각 80%, 30% 이상 급등
 - 당분간 서방의 對러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러·우 생산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친환경 인프라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
- **철광석, 석탄, 철스크랩 등의 철강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철강사의 제품가격 인상 러시 속에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원가부담 불가피**
- 러시아산 석탄 및 철스크랩 수입 제한, 호주산 대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철강 원료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철강가격의 cost push성 상승이 예상
 - 2022년 들어 철광석 가격은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했고, 강점탄은 2배 이상 급등(국내 철강업체의 강점탄 수입 중 러시아산 비중은 15% 정도이며, 러·우 사태 이후 호주산 비중을 확대 중)
 - 실제 국내 메이저 철강사는 '21년부터 주요 제품(열연, 후판, 자동차 강판, 철근 등)의 가격을 인상 중이며, 올해 들어 인상 폭을 확대하는 분위기
 - POSCO, 현대제철 등은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30만원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완성차 업체(현대자동차, 기아차)는 톤당 10만원 대 중후반의 가격을 제시하며 협상이 난항
 - 철강 등의 산업금속 가격 급등 시 건설·자동차·조선·IT가전 등의 전방산업은 원가율 상승에 따라 수익률 하락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전후방 업체 대비 가격 전가력이 낮은 중소형 제조업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
 - 국내 주요 기업들은 러·우 사태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1순위로 언급(전경련 2022년 3월, 기업 설문조사 보고서) [📄](#)

그림3 | 철강 주요 원료 및 철강가격 추이



자료 : Korea PDS

그림4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리스크 요인

주 : 매출액 상위 제조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C.31 조선 : ‘러-우 전쟁’으로 LNG선 수주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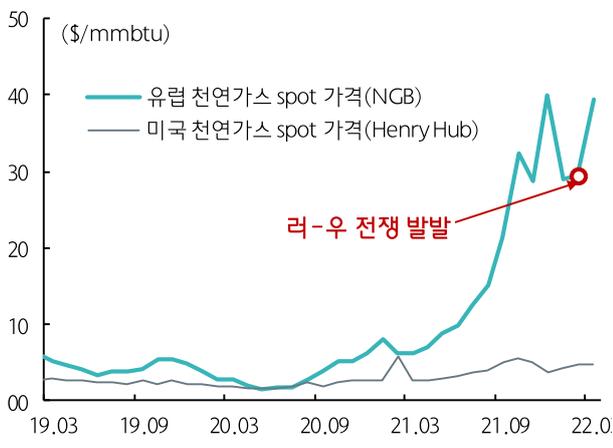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jh.kim_@hanafn.com

※ **Summary**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LNG선 용선료 또한 급등. 이는 유럽이 가스 도입선 다각화를 모색하며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던 천연가스를 해상운송으로 대체하고자 하기 때문. 유럽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미국 등으로 대체할 경우 LNG선 시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 그러나 해상운송에 의한 천연가스 운송 비용은 파이프라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므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불가피. 국제 정세가 안정될 경우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 LNG 관련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유럽의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공급을 대체하기 위한 LNG선 해운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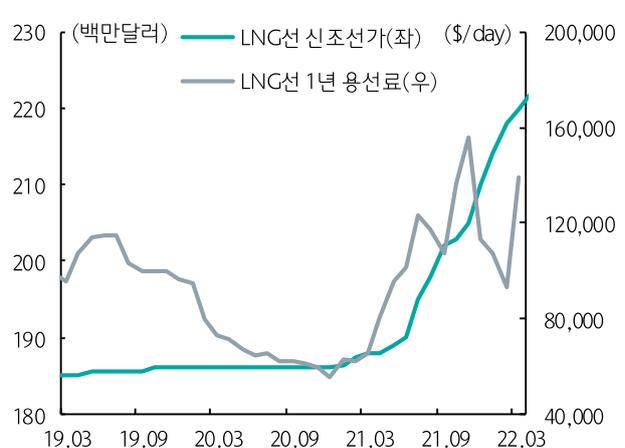
- 펜트업 소비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겹치면서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세 장기화
 -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 중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30~40% 수준
 - 유럽 천연가스 spot 가격(\$/mmbtu) : 5.1('19.3월) → 2.8('20.3월) → 6.2('21.3월) → 39.5('22.3월)
-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LNG 해상 운송량이 증가하며 LNG선 용선료와 신조선가는 강세를 보임
 - LNG선 1년 용선료 (천 \$/day) : 96('19.3월) → 73('20.3월) → 65('21.3월) → 140('22.3월)
 - LNG선 신조선가 (백만달러) : 185('19.3월) → 186('20.3월) → 188('21.3월) → 220('22.3월)

그림5 | 천연가스 spot 가격 추이



자료 : Clarksons

그림6 | LNG선 1년 용선료 및 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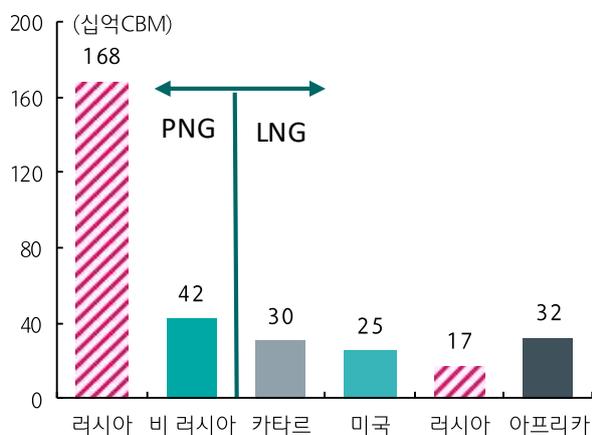


자료 : Clarksons

■ EU의 에너지 안보강화 움직임에 따라 미국산 LNG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어 LNG선 건조 경쟁력이 높은 한국 조선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2년 3월 EU는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미국은 EU에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여 EU의 목표를 지원
 - '20년 유럽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65%가 파이프라인을 통한 것으로 PNG¹⁾ 중 79%는 러시아에서 조달하였고, LNG는 카타르, 미국, 러시아,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알제리) 등에서 수입
 - EU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원 다각화를 모색하였고, 이에 미국은 EU에 연내 1,100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30년까지 매년 약 3,700만톤의 LNG를 공급하기로 결정
- 독일의 노드스트림2 사업 중단으로 유럽은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PNG대신 LNG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드스트림2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LNG선 70척 필요
 - 노드스트림2의 연간 가스 수송량은 550억m³(LNG기준 약 4,300만톤)이며, LNG선 1척의 연간 평균 가스 수송량은 약 7.8억m³(LNG기준 약 61만톤)
-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여 미국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미국의 LNG 플랜트 가동율이 상승하며 LNG 해상교역량과 LNG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2년 美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에서 연간 2,560만톤 생산 예정이며 이에 따라 LNG선 31척 필요
- 한국 조선사는 카타르·모잠비크의 대형 LNG 프로젝트가 '22년으로 이월되면서 올해 수주 상황이 우호적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LNG선 발주가 증가할 경우 '25년 이후 추가적 물량 확보에 유리해져 중장기 안정적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LNG선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기술 우위에 있어 '21년 전 세계 LNG선 수주 점유율이 87%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LNG선 수주 증가는 곧 한국 조선소의 호재를 의미
 - 한국 조선소 수주잔량(만CGT, '21년 4월 기준) : 1,102('23년) → 1,084('24년) → 415+a('25년)

그림7 | 2020년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원



자료 : BP

표1 | 미국의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22년 3월 기준)

프로젝트	출어량 (mt/yr)	시공 예정일	생산 예정일	선박 사이즈 (CBM)	필요 선박 수 (척)
Plaquemines LNG	10.00	2022	2024	174,000	16
Golden Pass LNG Train 1	5.20	2018	2025	174,000	9
Golden Pass LNG Train 2	5.20	-	2026	174,000	9
Golden Pass LNG Train 3	5.20	-	2026	174,000	8
Total	25.6				31

자료 : Clarksons

[1] PNG(Pipeline Natural Gas)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천연가스를 의미하며 LNG는 액화(Liquefied) 천연가스를 의미

■ 단, 국제 정세가 안정될 경우 러시아산 PNG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이 회복될 시 LNG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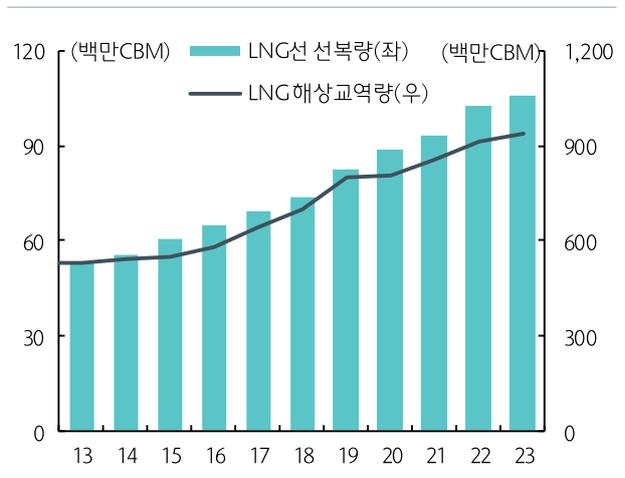
- 미국산 LNG는 러시아산 PNG와 달리 액화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운송비 또한 선박이 파이프라인보다 비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
 - 미국 LNG 수출 가격 구조 = 115% x HH(헨리허브 천연가스 spot) + 액화비용 + 운송비
- 유럽은 REpowerEU(對러시아 에너지의존도 감축전략)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곧바로 러시아산 PNG 수입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노드스트림2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저렴한 PNG 수입 비중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 노드스트림2에는 총 110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이중 절반은 가스프롬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쉘(영국), OMV(오스트리아), Engie(프랑스), Uniper(독일) 등 유럽 주요국 기업들이 분담
- 러시아의 PNG 수출 재개시 LNG 수요가 둔화될 경우 수주 취소 우려가 존재하나, 수주 취소시 발주사의 배상금 규모가 매우 크고, 수주가 취소되더라도 LNG선 시장 호황으로 인해 건조 후 리세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주 취소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
 - EU의 'Fit For 55'로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LNG 해상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LNG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LNG 해상교역량(백만CBM) : 798.4('19년) → 809.7('20년) → 859.1('21년) → 916.7('22년)
 - '21년 전 세계 LNG선의 연간 수송능력은 8.1억CBM이나 연간 LNG 해상교역량은 8.6억CBM으로 LNG선 공급이 부족하여 LNG선 선가 상승과 발주 확대 예상 📈

그림8 | 노드스트림1/2 가스관 경로



자료 : BBC, Gazprom

그림9 | 전 세계 LNG선 선복량 및 LNG 해상교역량



자료 : Clarksons

F. 건설업 : 원자재 가격 상승이 건설업 및 시멘트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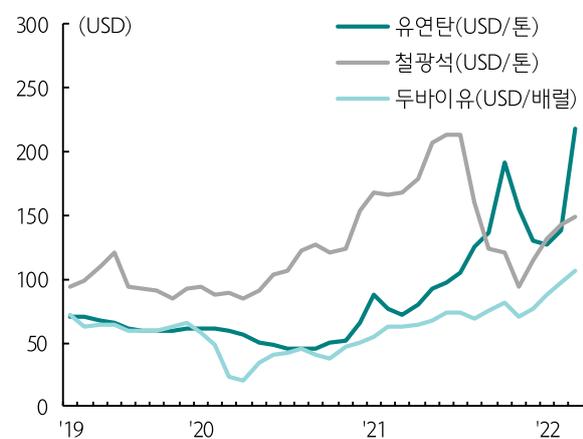
연구위원 황규완 gwhwang@hanafn.com

※ **Summary** : 건설경기가 소폭 회복되는 가운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축자재 가격상승 압력이 심화되고는 있으며, 특히, 시멘트 생산의 부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예년 대비 4배 가까이 상승해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의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자재가격 상승이 건설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5% 내외로 제한적이고, 주택경기 활황으로 건설사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어 악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시멘트는 소성재료가 유연탄 이외의 재료로 다변화되면서 가격 상승폭 압박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레미콘 가격 상승도 우려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건설 경기 회복이 겹치면서 건축자재 가격상승 압력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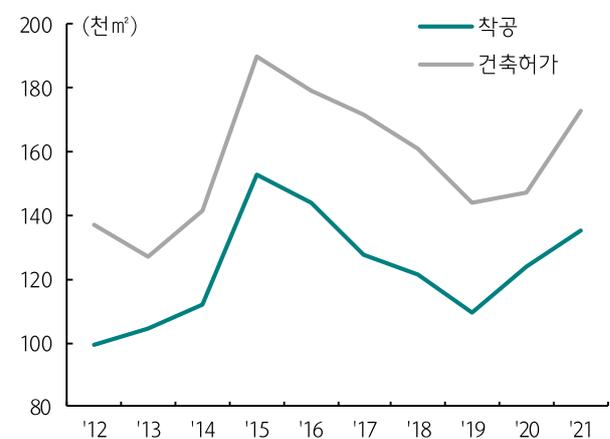
- 전년 말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주요 원자재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각국의 대 러시아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불안으로 큰 폭 상승 중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수급 불안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특히, 건축 자재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철광석, 유연탄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멘트, 레미콘, 건설사 등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
 - 철광석은 통상 후판 생산에 사용되며, 건축 자재인 철근은 철 스크랩을 활용해 생산하나 철광석 가격과 철 스크랩 가격은 연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주택경기 활황,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착공,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이 겹치면서 건축 인허가 면적 및 착공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건축 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

그림10 |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림11 | 건축 인허가 및 건축 착공 면적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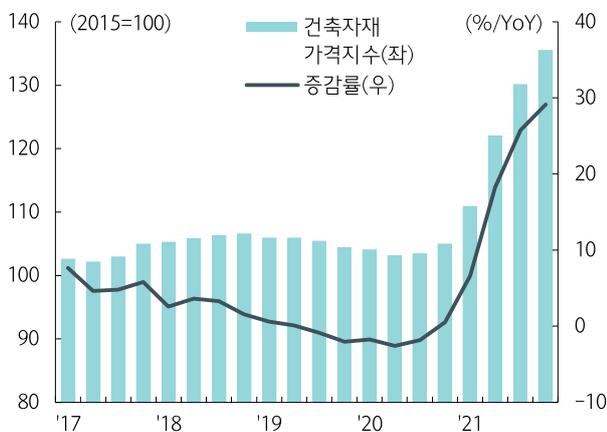
■ **건축 자재 가격 상승 장기화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중단 등 피해 발생 우려**

- 건축 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전년 하반기 이후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사업장의 공사 중단 또는 공사 포기 현상이 관찰되는 등 건설업 피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 건설업 물가지수(4분기 기준) : 104.5('17년) → 104.7('19년) → 104.9('20년) → 134.7('21년)
- 그 동안 철근, H빔 등 철강제품의 가격급등이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시멘트 소성 연료인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시멘트, 레미콘 가격 상승 압력도 강해지는 중
 - 철근 가격 지수(4분기 기준) : 102.2('17년) → 105.4('19년) → 104.6('20년) → 126.3('21년)
 - 유연탄 가격(4분기; USD/톤) : 82.8('17년) → 60.2('19년) → 55.3('20년) → 159.1('21년)
- 대기업 건설사의 경우 자재 공급 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해 상대적으로 건설원가 관리가 용이한 반면 중소, 중견 건설사의 경우 스팟 계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과 같이 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원가관리가 불가능해 공사 중단 또는 공사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

■ **원자재 가격 상승에 중국 등의 수출 통제로 인해 단기간에 가격 불안 해소는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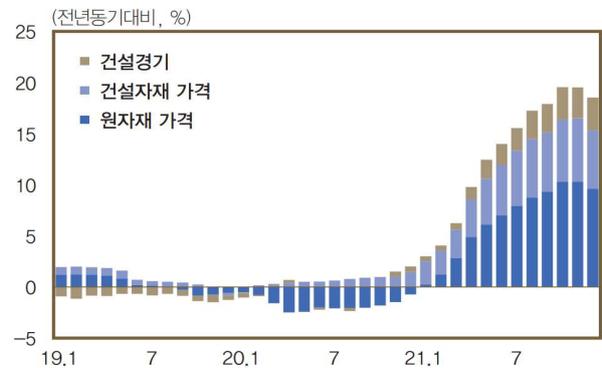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팬트업 수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건축 자재 가격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주목
- 여기에 중국의 자국 내 수급 불안에 대응한 철강재 수출 통제('21.5월) 도입, 국내 생산 업체들의 생산량 감축 등이 겹치면서 철강 자재를 중심으로 가격 불안 장기화
 -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23년까지 약 46조원)를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철강생산량 동결('21.6월)
 - 건설용 중간재 생산지수('15=100) : 102.4('17) → 89.2('19) → 84.0('20) → 80.5('21)

그림12 | 건축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13 | 건축자재 가격 변화 원인 분해



주: 원자재가격, 건설중간재가격, 국내건설기성의 3변수 부호제약 VAR모형을 이용하여 요인별 기여도를 분해

자료: 한국은행(2022), '건설투자 회복의 제약요인', BOK 이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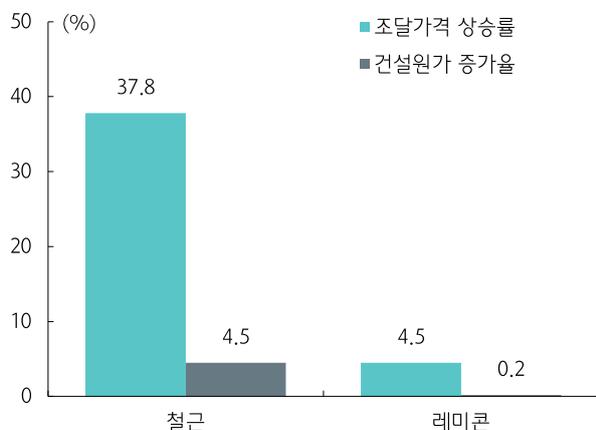
■ 건설업은 자본 및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

- 건설업은 원자재 외에 노동력, 기타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소요되는 산업으로 원자재 가격 외에 다양한 요소가격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근 자재 가격 상승영향은 희석
 - 건설업 원가구성 : 건설자재 38%, 서비스 18%, 노동 27%, 기타 17%
- 5대 건설사의 '21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최근 건설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증가 폭은 5% 미만으로 추정되어 재무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자재별 원가 상승률 : 철근 4.5%, 레미콘 0.2%
- 다만, 중소건설사(건설능력 평가 100위 미만)의 경우 자재가격 보다 자재의 재고 부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

■ 건설업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충격에 대한 방어는 충분할 전망

- 주택경기 활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사의 주력 사업 부문인 주택 건설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과거 대비 건설사들은 매우 안정적인 재무여건을 유지 중
 - 건설사 합산 부채비율을 '13년 213.5%였으나 '20년에는 152.1%로 하락
- '20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6.7% 수준으로 건축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5% 내외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판관비 등의 비용 절감 여력을 감안하면 어닝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
 - 이론적으로는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나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
- 자재가격 상승 보다는 자재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한 상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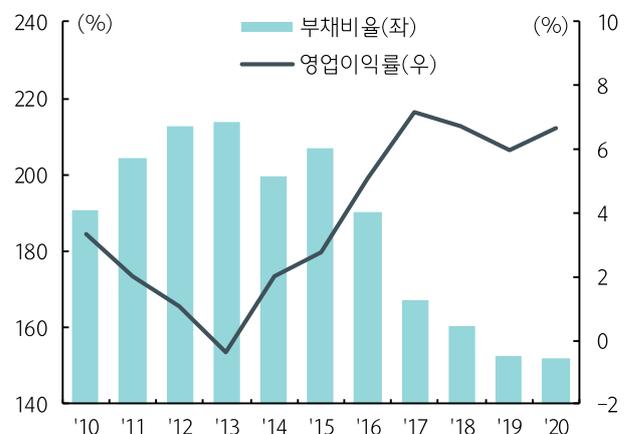
그림14 | 건설 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원가 변동



주 1: 건설원가 중 건축자재 비중(40%) 및 자재별 이용비율(철근 30%, 레미콘 11%) 적용(건설산업연구원, '06)

주 2: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5개사 합산

그림15 | 건설사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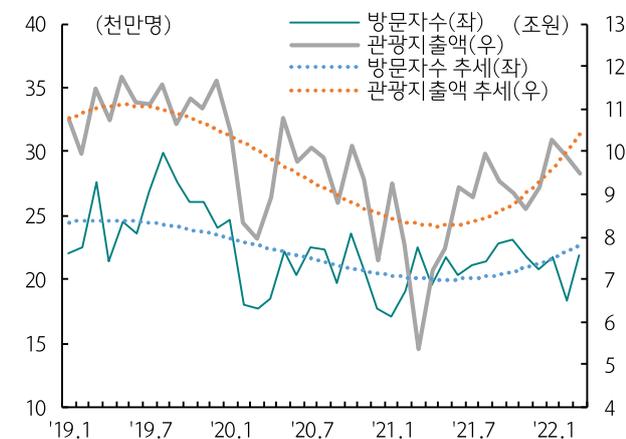
155 숙박업 : 거리두기 완화 및 숙박 이용 경험 고급화로 숙박업은 지속 회복 기대

연구위원 구강모 kang.koo@hanafn.com

※ **Summary** : 해외 여행객의 수요가 국내로 쏠리면서 내수 숙박업의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으며, 개인별 관광지 지출액 또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년 3만 명까지 하락했던 해외 방한 입국자 수는 '21년 이후 지속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 및 항공기 증편에 따른 해외 입국자 수 증가가 예상. 국내 관광객은 4~5성급의 호텔 이용도가 상승하여 관광의 고급화 진행 중이며 숙박업 지수 또한 회복세의 시그널을 보여주어 '22년 숙박업은 고급 시설을 선두로 한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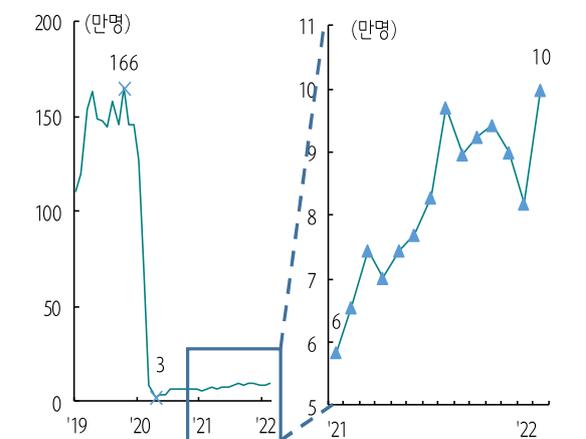
- 거리 두기 완화, 접종 완료자의 해외 입국 격리 해제 등으로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 속에서 고급 시설을 선호하는 여행 소비 심리 및 해외 입국자 증가는 숙박업 실적 개선에 호재로 작용
 - 국내 여행객 수는 과거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확인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중
 - 타 지역 방문객 수의 증가에 비해 관광 지출액의 상승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업황 회복이 기대
 - '22년 방문객 및 관광 지출액 증가 추이(1Q 평균, YoY) : 방문자수(5.9%), 관광 지출액(32.3%)
 - 코로나 이전 월 160만 명을 상회하던 방한객 수는 코로나 이후 3만 명 수준까지 하락 하였으나 '22.2월 10만 명으로 증가(YoY, 52.5%↑)한 점도 호텔업계에는 호재
 - 방한객 변동 추이 : 58,397('21.1월) → 65,582('21.2월) → 81,851('22.1월) → 99,999('22.2월)
 -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 및 항공기 증편에 따라 입국자 수 증가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그림18 | 국내 타지역 방문자수 및 관광지 지출액



주 : 추세선은 3차 다항식 추세선 사용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 데이터 랩

그림19 | 해외 방한 입국자 수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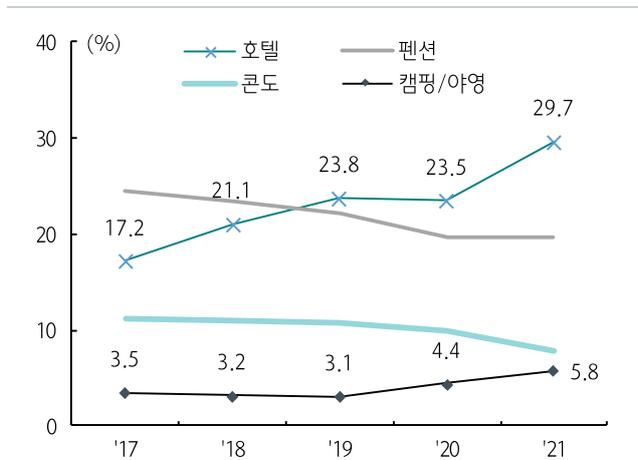
■ 해외여행 제한에 따른 국내 여행 증가 및 투숙객 증가로 호텔업 실적 추가 개선 기대

- 해외여행의 제한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했으며, 코로나 이전 선호되었던 펜션의 인기가 소폭 감소한 반면 호텔, 캠핑/야영 시설 사용객 비중은 증가
 - 호텔, 사용객 비중 (%) : 17.2('17) → 21.1('18) → 23.8('19) → 23.5('20) → 29.7('21)
 - 캠핑/야영장 사용객 비중 (%) : 3.5('17) → 3.2('18) → 3.1('19) → 4.4('20) → 5.8('21)
- '20년 숙박업 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으나 '21년 국내 여행 경비 지출 증가, 투숙객 수요 고급형 선호, 외국 관광객 증가 등은 호텔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서울 호텔 실적(객실 이용율/ 외국인 숙박객 비율) : 78.15% / 54.49%('19) → 36.21% / 21.69%('20)
 - 국내 숙박비 10만 원 이상 지출 비중 (%) : 21.1('18) → 21.2('19) → 23.4('20) → 29.6('21)

■ 숙박업 산업지수는 '20.1Q 최저치를 벗어나 상승 추세가 유지 중으로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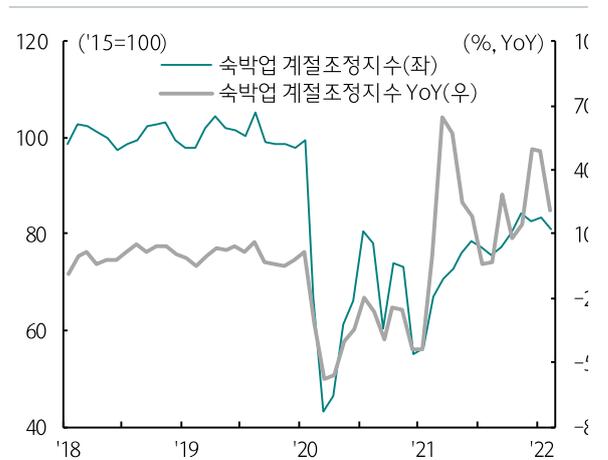
- 숙박업 경상지수는 '20.3월 37.4를 기록하여 최저치에 도달하였으나 '21년 평균 74.4로 상승하여 회복의 신호를 보임('19년 평균 103.9)
- 11~12월보다 1~2월의 숙박업 경기가 저조한 점 감안 시, 숙박업 계절조정 산업지수는 '21년 말보다 '22년 초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큰 폭의 개선을 보임
 - 숙박업 산업지수(계절조정지수) : 84.2('21.11) → 82.5('21.12) → 83.5('22.1) → 81.1('22.2)
 - 숙박업 계절조정지수 추이(YoY, %) : 14.9('21.11) → 49.7('21.12) → 48.3('22.1) → 21.0('22.2)

그림20 | 국내 여행 숙박시설 이용 추이



주 : 컨슈머 인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컨슈머 인사이트

그림21 | 숙박업 산업지수



자료 : 통계청

산업별 주요 지표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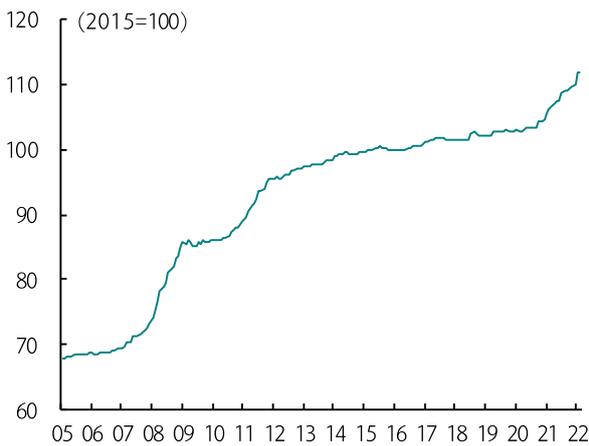
그림22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곡물 수입가격 지수 (2015=100)	21.8	21.9	21.10	21.11	21.12	22.1	22.2	전월비(%)	전년비(%)
밀	145.94	154.42	157.55	164.82	163.82	163.64	164.23	▲ 0.4	▲ 51.6
옥수수	168.17	170.25	174.38	170	171.86	177.62	204.86	▲ 15.3	▲ 40.1
콩	130.22	128.33	128.24	124.48	126.99	131.79	141.31	▲ 7.2	▲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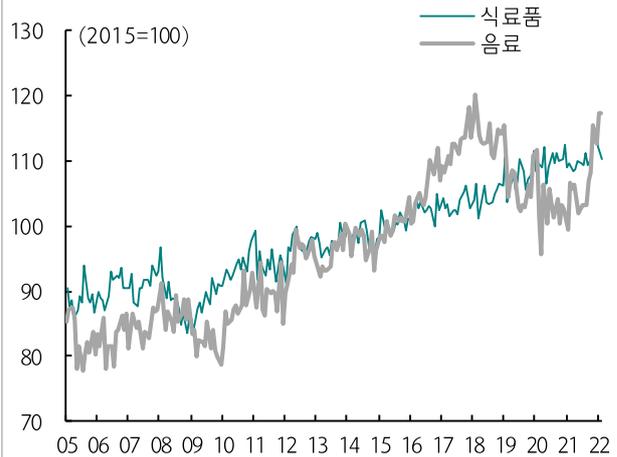
그림23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음식료품 가격 지수	21.12	22.1	22.2	전월비(%)	전년비(%)
음식료품	109.9	111.7	111.9	▲ 0.2	▲ 5.3

그림24 | 음식료품 출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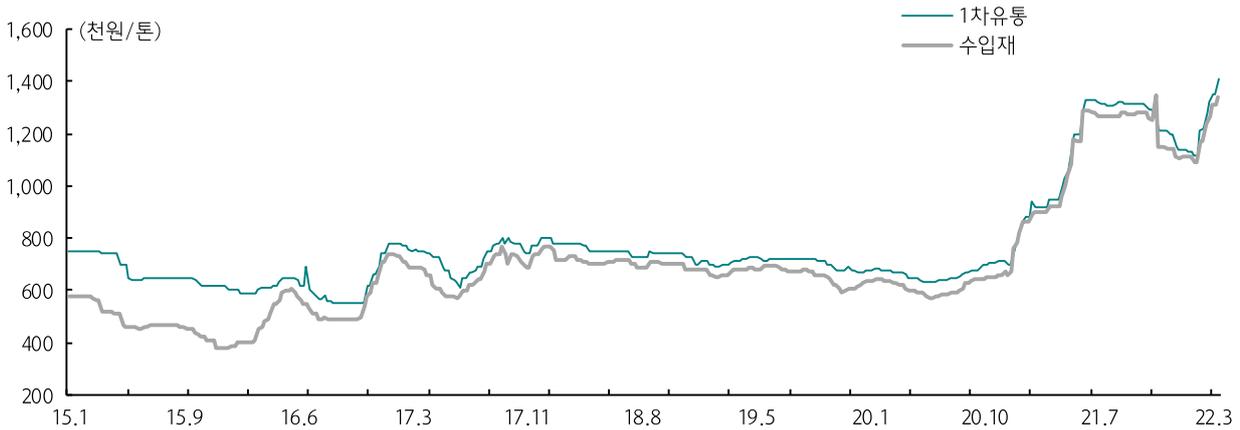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음식료품 출하지수	21.12	22.1	22.2	전월비(%)	전년비(%)
식료품	114.4	112.0	110.3	▼ 1.5	▲ 0.1
음료	112.6	117.2	117.3	▲ 0.7	▲ 9.8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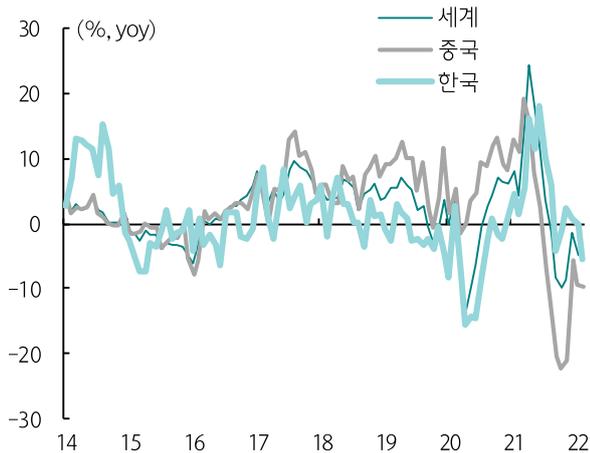
그림25 |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자료: 한국철강신문

철강 유통가격 (천원/톤)	21.10	21.11	21.12	22.1	22.2	22.3	22.4	전월비(%)	전년비(%)
1차유통	1,315	1,280	1,210	1,140	1,115	1,280	1,410	▲ 10.2	▲ 41.0
수입재	1,280	1,350	1,140	1,110	1,090	1,240	1,340	▲ 8.1	▲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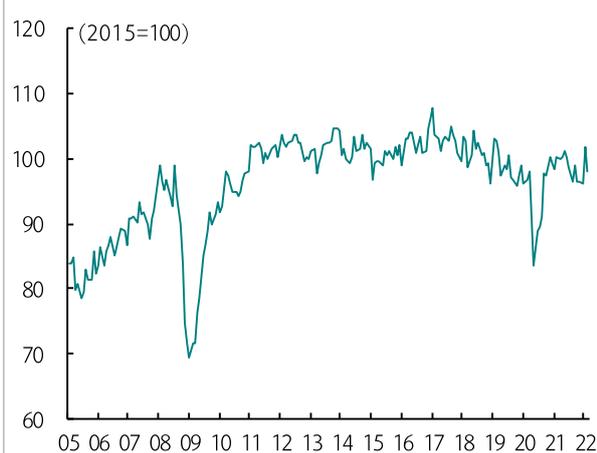
그림26 | 전 세계 조강생산 증가율



자료: Korea PDS

월별 조강생산	21.12	22.1	22.2	전월비(%)	전년비(%)
전 세계	158,700	155,000	142,700	▼ 7.9	▼ 13.3
한국	6,000	6,000	5,200	▼ 5.0	▼ 5.5

그림27 |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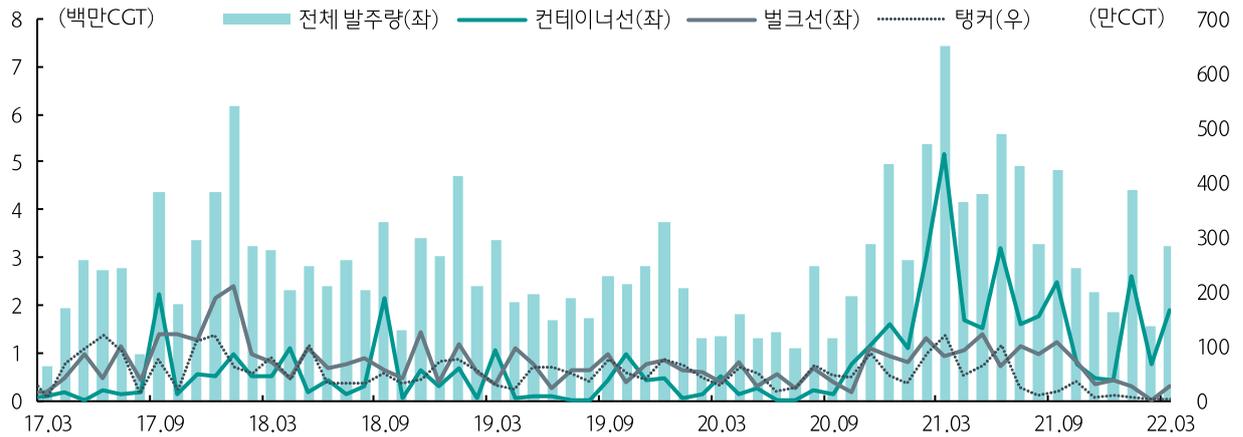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속 출하지수	21.12	22.1	22.2	전월비(%)	전년비(%)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96.2	101.7	98.0	▼ 3.7	▼ 2.1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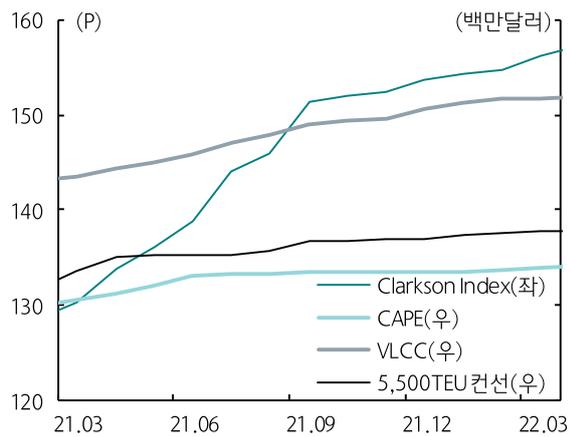
그림 28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자료: Clarkson

선종별 발주량 (만 CGT)	21.09	21.10	21.11	21.12	22.01	22.02	22.03	전월비(%)	전년비(%)
전체 발주량	329	258	194	156	307	157	323	▲105.7	▼56.5
컨테이너	173	68	36	24	133	66	166	▲153.2	▼63.3
벌크	45	56	32	37	21	0	26	-	▼68.0
탱커	2	36	0	5	6	2	1	▼18.8	▼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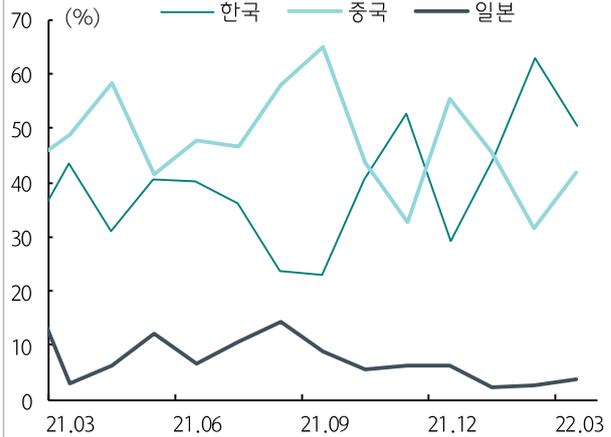
그림 29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자료: Clarkson

선가지수 (P) 및 선가 (mil \$)	22.01	22.02	22.03	전월비 (%)	전년비 (%)
Clarkson Index	154.3	154.7	156.2	▼0.3	▲13.3
CAPE	60.5	61.0	61.5	▼0.8	▲8.0
VLCC	114	115.0	115.0	▼0.9	▲20.0
5,500TEU 컨선	72	72.5	73.0	▼0.7	▲9.9

그림 30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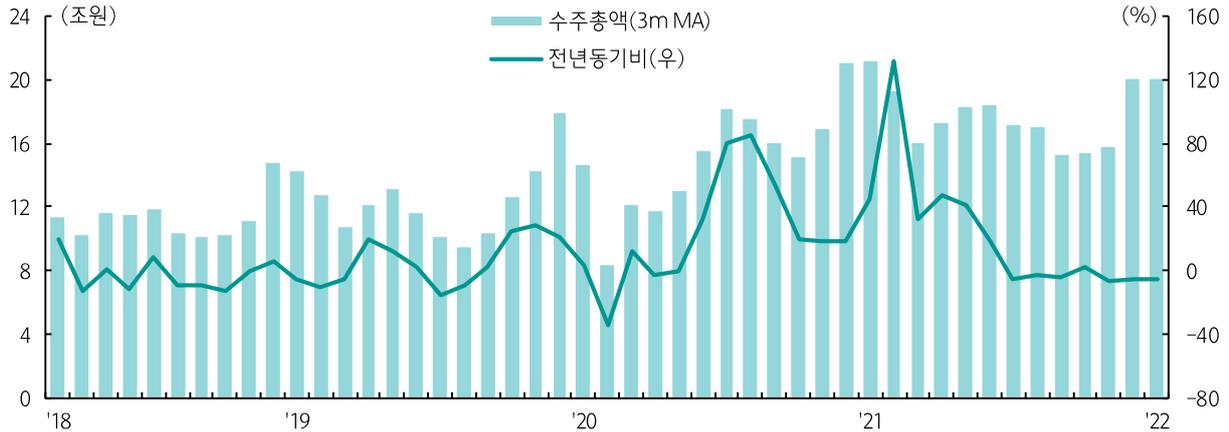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주 점유율 (%)	22.01	22.02	22.03	전월비 (P)	전년비 (P)
한국	45.1	63.0	50.7	▼17.9	▲1.4
중국	47.9	31.4	42.0	▲16.5	▼1.1
일본	3	2.7	3.6	▲0.3	▼0.1
합산	96.1	97.2	96.3	▼1.1	▲0.3

건설업(C26) 주요 지표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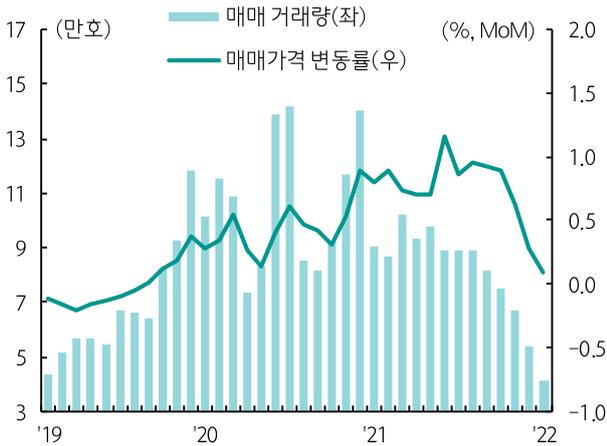
그림31 | 국내 건설수주 총액



자료: 통계청

공종별 수주액 (3m MA/조원)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2.01	전월비(%)	전년비(%)
전 공종	17.15	17.02	14.81	15.15	15.75	19.96	19.34	▼ 3.1	▼ 2.6
건축(주택)	6.84	7.14	7.02	7.18	7.29	8.61	8.06	▼ 6.4	▼ 18.9
건축(비주택)	5.99	6.24	5.00	5.56	5.07	5.86	5.92	▲ 1.1	▲ 10.1
토목	4.32	3.63	2.78	2.41	3.38	5.49	5.36	▼ 2.5	▲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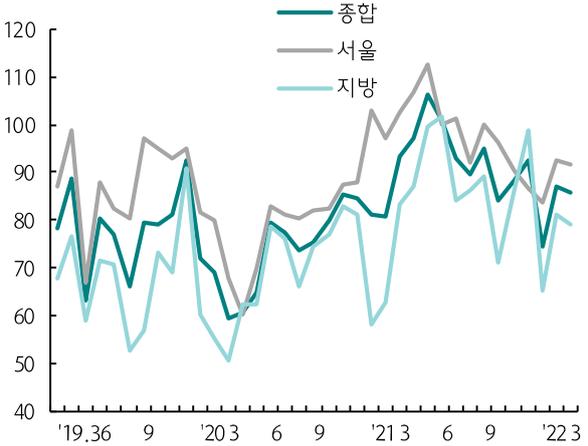
그림32 | 주택시장 주요 지표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시장 지표	21.11	21.12	22.01	전월비(%)	전년비(%)
주택매매거래량(호)	67,159	53,774	41,709	▼ 22.4	▼ 54.0
주택가격 지수	104.3	104.6	104.7	▲ 0.1	▲ 9.2

그림33 |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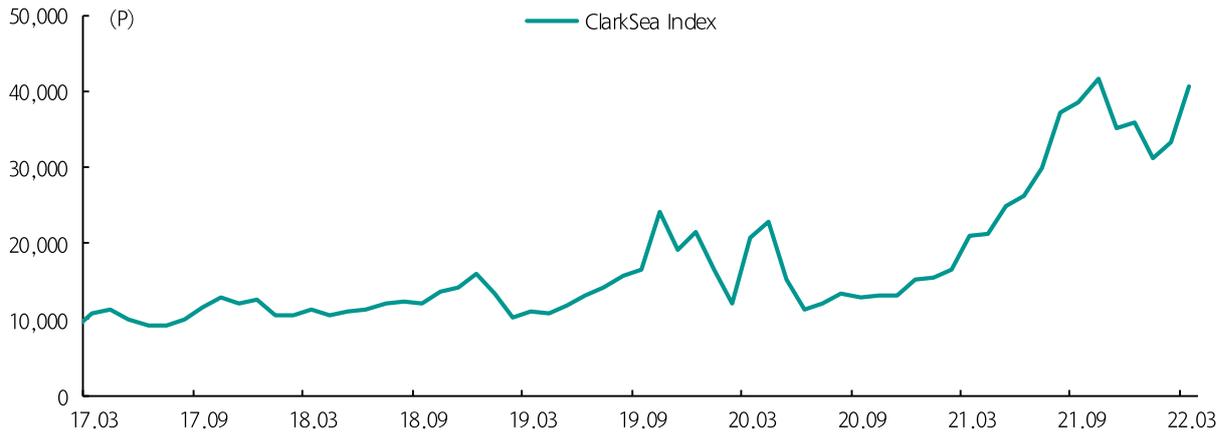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지 역	22.1	22.2	22.3	전월비(%)	전년비(%)
종 합	74.6	86.9	85.6	▼ 1.5	▼ 8.2
서 울	83.5	92.3	91.6	▼ 0.8	▼ 10.7
지 방	65.3	81.2	79.1	▼ 2.6	▼ 4.8

해상운송(I. 운수)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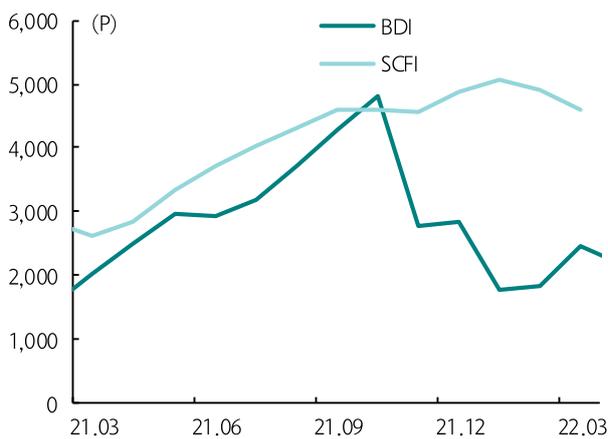
그림34 | Clarkson 해운종합지수(Clarksea Index)



자료: Clarkson

운임 지수 (\$/Day)	21.07	21.08	21.09	21.1	21.11	21.12	22.01	전월비(%)	전년비(%)
Clarksea Index	29,967	37,395	38,671	41,582	35,132	36,001	31,256	▼13.2	▲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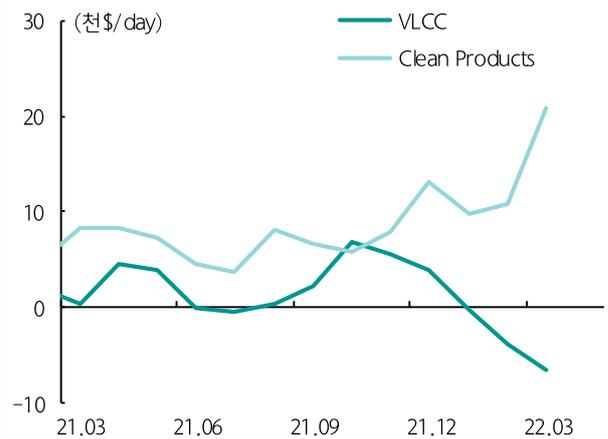
그림35 | 벌크선(BDI) 및 컨테이너선(SCFI) 운임 지수



자료: Clarkson

운임 지수 (P)	21.11	21.12	22.01	전월비 (%)	전년비 (%)
BDI	1,761	1,834.9	2,464.1	▲34.3	▲22.1
SCFI	5,067	4,915.1	4,586.6	▼6.7	▲74.5

그림36 | 탱커선 운임(Earnings)



자료: Clarkson

운임 (\$/Day)	21.11	21.12	22.01	전월비 (%)	전년비 (%)
VLCC	-220	-3,978	-6,573	▲65.2	▼1,870
Clean Products	11,006	10,687	20,947	▲96.0	▲154.4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02-2002-2683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